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붙임번호	2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업우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1~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국어,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국가의 개입, 무위의 다스림, 지방 분권
예상 소요 시간	준비시간 12분, 면접시간 6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복지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빈곤이나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 무역과 무한 경쟁은 이른바 20 대 80의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과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그리고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20 대 80의 사회 :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 인구 중 20%만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80%의 빈곤층과 20%의 부유층으로 사회가 양분될 것이라 보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주장

(나) 도가 윤리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노자는 “도(道)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이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주장하였다. 도가 윤리는 이러한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소국 과민**을 이상 사회로 본다. (중략) 도가 윤리는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함으로써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소국 과민(小國寡民) :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다) 나 홀로

그렇게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잠긴 채.

그들 속에서
나는 한 떨기 꽃송이를 보았어.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웠지.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
난 꺾여
시들어 버릴 테죠?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에다 심으려고
뿌리째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지.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우고 있네.

(라)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 사무와 지방 자치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 사무가 있다. 그중 국가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80% 내외)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사무의 경우 국가의 지도·감독이 중심을 이루지만 조례 제정을 비롯한 지방 의회의 개입이 쉽지 않아 지역 자율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 재정법 제21조는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이 국가 사무에 가로막혀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

1. (가)의 ‘복지 사회’와 (나)의 ‘이상 사회’를 비교하시오.
2. (나)의 관점에서 (다)의 화자인 ‘나’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3. (가), (나), (다)를 두루 참고하여 (라)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말해 보시오.